

지역 소식통

정읍시, 초산동 '초화로 이야기 마당' 열려

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대표 윤균상)가 주최·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하는 '초화로 이야기 마당'이 20일 초산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열렸다.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초화로 이야기 마당'은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 간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그동안 진행해온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공유하고, 도시정원 디자인 워크숍을 수료한 주민들에게 수료증 전달했다.

또한, 각종 전과 나물 등 부너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를 함께 나누며 답소를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2년 우수 국산 밀생산단지 대상 수상

부안군은 지난 19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로 한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품질 향상과 성과 확산을 인정받아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이하 '조합')이 최고품질인 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번 선정 평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최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국산 밀 생산 단지의 전문화 및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품질 향상 제고에 노력한 전국 지자체의 생산단지를 대상으로 국산 밀 우수단지 선정으로 개최되었다.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단지의 조직화·규모화로 재배 면적과 참여 농가를 확대 시켜 공동방제와 재배 매뉴얼 관리 등에 우수한 점수를 받았으며, 또한 안정적인 관리를 확보하여 경영의 안정에도 힘쓰고 있다.

특히, 부안군우리밀영농조합법인은 경영체 중심으로 고품질 국산 밀 생산을 위해 지역별로 조직을 만들고 생산 기술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 해 참여 농가의 농가소득 보전에 매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2023년 예산 7697억원 확정

고창군, 전년 본예산 대비 6.58% 증가·추가경정예산도 8669억747만원 최종 확정

고창군의 2023년도 예산이 7,69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 16일에 고창군의회가 승인한 2023년도 예산은 일반회계 7,547억4,011만 원, 특별회계 150억6,644만 원, 총 7,697억7,045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7,222억2,928만 원)보다 6.58% 증가했다. 이와 함께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도 8,669억747만 원의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2023년 예산은 민선8기 공약사업과 활력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됐다. 특히 '2023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관광 인프라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

분야별로는 △일반 공공행정(299억 원)=고창군 제2청사 신축 35억 원, 서남부권 어울림 문화공간 조성 15억 원 등 △공공질서 및 안전(194억 원)=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13억 원, 소화전 정비사업 15억 원 등 △교육(63억 원)=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등 지역인재사업 37억 원, 청소년 자치·예술 미래공간 신축 10억 원 등 △문화 및 관광(568억 원)=도서관 건립 사업 62억 원 달빛노을양고살재 조성 사업 28억 원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 25억 원 등 △농림해양수산(1899억 원)=기분형 공익직접지불사업 460억 원,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지원 66억 4,000만 원,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40억

원 등 △환경 781억 원 △사회복지·보건 1,633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74억 원, △교통·물류분야 329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 관련, 터미널 부지매입 131억 원이 편성됐다. 상하지구 풍수해생태권장사업에 첫 삽을 뜨기 위한 내년도 예산 18억 원을 편성해 민선 8기 군정 핵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민선8기 고창군정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첫 본예산이 확정된만큼 군민모두가 행복할 활력넘치는 고창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이 미래 핵심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열악한 지방재정 한계를 넘어”

고창군, 2024~2025년 국가예산 발굴보고회 개최

고창군이 미래 핵심 재원 마련을 위해 국가예산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 20일 고창군에 따르면 전날(19일) '2024·25 국가예산 2차 발굴보고회'를 개최했다.

1차에 이어 2차까지 발굴한 2024·25년 국가예산사업은 총 100건에 9887억 원 규모다. 2024년 확보대상 사업은 63건에 2788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국가예산사업에 대한 타당성, 효과성, 지역발전 기여도 등 논의가 진행됐다.

23일에는 도교 스마트구청에서 고창읍에 운영현황과 클라우드편성 사례 등을 살펴보고, 고창읍에 클라우드 편성 운영 현안인 호쿠사이 미술관을 찾는다.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 재일전북도민회원들도 만나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고창군은 21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실의 신년 업무보고를 비롯하여 전라북도 업무보고 등을 변민히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사업발굴 할 계획이다. 내년 초까지 1~2차례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추가로 개최하고,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보강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부처 설득 논리를 만들어 간다.

또한 내년부터는 예산과 다르게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1월부터 부처를 조기 방문하여 설득 작업에 들어가 향후 기재부 단계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하는 시스템으로 변화해 나갈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열악한 지방재정의 한계를 넘어 군 예산 1조원의 재정 규모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가 필불필요 되어 주어야 한다”며 “앞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국제교류 협의 · 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 일본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 4박5일 일정

심덕섭 고창군수가 20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출장길에 오른다. 이번 출장은 민선 8기 국제교류 협의와 고향사랑기부제 벤치마킹을 위해 추진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를 단장으로 방문단 13명은 일본 도쿄와 치바현 미나미보소시 등을 찾는다.

방문 첫날인 20일에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듣는다. 일본 지자체의 다양한 고향납세 사례 등을 들으며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에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한다.

방일 이튿날인 21일에는 '거산재판(주) 대표 이순배'와 지역 농산물 판로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 일본 지역활성화센터 이사장과 면담을 통해 현재 양국의 공통적인 고령화 인구소멸 문제를 논의한다. 일본 고향납세 전문가 호우다 게이오에 교수와 초빙해 좌담회를 갖고, 제도 활성화를 모색한다.

이후 치바현 미나미보소시로 향한다. 미나미보소시 이사이 유타카 시장과

면담을 갖고 지역간 첫 교류 협의 등이 진행된다. 해당지역의 고향납세 관련 업체인 보소스카이팜, 헤구리 허브 콘도복장을 차례로 방문하여 답례품 생산과정과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23일에는 도교 스마트구청에서 고창읍에 운영현황과 클라우드편성 사례 등을 살펴보고, 고창읍에 클라우드 편성 운영 현안인 호쿠사이 미술관을 찾는다. 마지막 일정으로 도교 재일전북도민회원들도 만나 전북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아양산 자락에 도시형 산림 치유의 숲... 2026년 완공 예정

정읍시 시가지 정읍시문화공원 일대에 조성된 '아양산 숲'에 이은 또 하나의 도시형 치유의 숲이 들어선다. 시는 교암동 산57-1번지 아양산 일원에 약 51.8ha(51만 8천여㎡) 규모의 도심 속 치유의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50억 원(도비 25억 원, 시비 2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도심 속 치유의 숲은 시민들에게 스트레스와 아토피 피부염 등 각종 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워주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 산림 치유 공간을 말한다. 시는 지난 5월 타당성 평가 후 11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으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계획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



후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조성에 들어가 202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치유의 숲에는 치유프로그램 안내와 각종 편의시설을 갖춘 치유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또 색깔과 향기를 만끽할 수 있는 '향기 치유정원'과 산비림을 느끼며

누구나 편안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풍욕장', 명상과 사색의 치유 활동 공간인 명상의 숲이 들어선다.

아울러 치유의 숲 곳곳에 통나무 의자와 아외탁자, 평상 등을 설치해 등산객과 인근 주민의 답소 공간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관 향기, 피톤치드 등 풍부한 산림 자원을 활용해 유아, 청소년, 임산부, 중·장년,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정읍시 숲길과 정읍사 공원, 정읍사 디지털 테마공원과 연계해 정읍의 대표적인 힐링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내년 군정 주요 업무 보고회 개최

부안군(군수 권익현)은 지난 13·14·20일, 내년에 역점적으로 추진할 군정 주요 업무에 대한 관·과·소별 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민선8기 공약사업과 핵심사업을 비롯하여 부진사업과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대책 마련을 위한 보고가 주를 이뤘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의 정책이 많이 달라짐에 따라 변화된 정부정책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주로 논의된 2023년도 사업들은 △푸드 앤 레포츠 타운 건립 △ICT 스마트관 단지화 △블루카본 증진사업 △세계 지질공원 인증

준비 △격포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갯벌 생태공원 지방정원화 △갯벌 치유센터 조성 △변산해수욕장 관광휴양콘도 조성 △청자산업 활성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지정 △공설 자연장지 사업 △공동방재 △소수·중력 기업발굴 및 유치 등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적극행정 덕분에 2022년에도 한빛관광 방역센터 유치 등 여러 성과를 낼 수 있었다”며 “민선7기에 나타난 성과들이 민선8기에 결실을 맺어 부안군이 대도약을 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